

국가기본도의 산 지명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사례로

김창환* · 이상원**

A Study on the Name of Mountains of National Base Map: Gangwon-do Province as an Example

Chang Hwan Kim* · Sang Won Lee**

요약 : 본 연구는 산 지명의 전부지명소 분석을 통한 지명 형성 정보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체 분석 틀인 「산 지명 유형 분류 기준」을 만들고 강원도의 산 지명 910개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연지명은 580개로 점유비는 63.7%이다. 지형은 186개로 산 175개, 하천 10개, 평야 1개이고, 지세는 201개이다. 위치는 83개로 숫자 39개, 방위 35개이다. 동·식물은 67개이며, 동물 46개, 식물 21개로 동물이 2배 이상 많고, 지질은 31개, 기후는 12개이다. 둘째, 인문지명은 316개로 점유비는 34.7%이다. 염원은 130개로 신앙 39개, 희망 58개, 풍수 33개이다. 산업은 77개로 모자 관련이 24개로 매우 많고 샷갓은 강원도 특화 지명이다. 인물 46개, 주거 33개, 시설물 30개이다. 셋째, 산 지명은 멀리서 지세와 형세 등 산의 흐름과 경향성을 보고, 가까이에서 산의 모형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일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했던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의 지세가 산 지명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국가기본도, 지형, 지세, 지명, 산 지명, 전부지명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formation on the formation of place names through the analysis of prior morpheme of a toponym of name of mountains. To this end, this study created a self-analysis framework,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type of mountain names」 and analyzed 910 names of mountain in Gangwon-do. First, there are 580 natural place names, and the occupancy ratio is 63.7%. There are 186 landforms including 175 mountains, 10 streams, and 1 plain, and there are 201 geographical features. The location is 83, with 39 numbers and 35 bearings. There are 67 animals and plants of 46 animals and 21 plants, more than twice as many animals as plants, and there are 31 geologies and 12 climates. Second, there are 316 human place names, and the occupancy ratio is 34.7%. There are 130 wishes of 39 faiths, 58 hopes, and 33 feng shui. There are 77 industries, 24 related to hats, and satgat(traditional hat made of bamboo) is a specialized place name of Gangwon-do. There are 46 people, 33 houses, and 30 facilities. Third, the name of mountains was expressed in terms that people heard and thought of in their daily life after looking at the flow and trend of mountains as geographical features from afar and looking closely at the model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s.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mountain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name of mountains.

Key Words : National base map, Landforms, Geographical feature, Place name, Name of mountain, Prior morpheme of a toponym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llskim@Kangwon.ac.kr)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sw2048@naver.com)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하늘과 땅이 닿은 자리에는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반드시 산의 능선이 스카이라인을 긋고 있는 것이 한국의 자연공간이요 한국적인 자연 풍경이다. 산이 없는 풍경이란 한국의 현실 세계에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심상 세계, 의식세계에도 없다(최정호, 1993).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산이 담겨 있다. 고개 들면 어디서나 산이 보인다. 산은 언제나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다. 그만큼 공간적으로 산이 많다는 뜻이다(최원석, 2014).

지도를 펴놓고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지명(地名)들이 짝 차 있다. 지명은 사람들이 사는 터전의 고유명사인지라 자연적으로 그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활용빈도 역시 다른 어휘보다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도수희, 1999). 어느 시대 누가 지었는지도 조차 알 수 없는 여타의 무수한 지명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강 이름, 산 이름, 내 이름, 나무 이름, 다리 이름, 논 이름, 밭 이름, 산골짜기의 이름들이 고유 지명으로 불리는 때가 많다(도수희, 1994). 그때는 우리말을 나타낼 우리의 문자 한글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우리말 이름과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 또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 한자를 이것저것 끌어다 썼다. 그런데 그 ‘끌어다 쓰기’에 통일된 원칙이 없다 보니 한 이름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한자가 사용된 것이다(최재용, 2015).

그러나 지명은 발생 이래 변천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인 변천을 거듭해 왔다. 지명의 가장 큰 변환은 삼국으로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신라(668년)로 통일되면서 정치, 문화는 물론 지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 지명을 모두 당나라식으로 고침에 따라 한자 지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지명의 개편은 첫째, 구지명(舊地名)을 유사 음의 호자(好字)로 바꾼 것, 둘째, 구지명을 음독한 것, 셋째, 구지명을 혼독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적인 방법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구지명의 음과 혼에는 관계없이 변환 것이 많다(전정숙, 1979). 즉, 처음에는 당연히 순우리말로 되어 있던 땅 이름들이 한자가 들어온 뒤로는 한자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한자의 뜻과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 쓰는 경우(음차표기)가 많았

다. 또한, 한자의 소리가 아닌 뜻을 이용해 이름을 붙이는 경우(훈차표기)도 있었고, 소리와 뜻을 동시에 이용해서 이름을 붙인 경우(혼음차 표기)도 있었다(최재용, 2015).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간직한 현재의 지명을 이해하는 데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 비교적 수월한 것은 한자의 뜻을 이용해 이름을 붙인 훈자표시 지명이며, 이보다 더 어려운 지명 해석의 층위는 음차 표기의 한자를 훈자표기로 착각하는 경우이다. 지명 해석에서, 더욱더 난해한 층위는 혼음차 표기 지명을 훈차표기로 착각하고 해석하는 경우이다(도수희, 1999).

지명에 관한 연구는 지명 체계 정비 관련, 지명 일반 관련, 지명 유형 분류 관련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명 체계 정비는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주도하여, 지명 표준화 방안(2005), 지명업무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2010), 지명의 종류별 정비 지침 마련(2014), 지명업무 활성화를 위한 지명 정비체계 기반 마련(2015), 지명 제정 확대를 위한 지명정비 및 국제활동 강화 전략(2016), 지명 표준화 역량 강화 최종보고(2018),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대응전략(2019) 등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지명정비를 진행하였다. 다음 지명 일반 관련 연구로 도수희(1994)는 지명의 정의, 기원, 특성, 어원, 전설, 지도와 관계 등으로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을 제안하였고, 또 도수희(1999)는 훈차표기, 음차표기, 혼음차표기 등으로 지명 해석의 새로운 인식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권선정(2010)은 충남 금산군을 대상으로 풍수 지명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것이 가지는 장소 의미를 고찰하였고, 또 권선정(2012)은 대전 지역의 풍수 지명을 사례로 풍수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희제(2018)는 한국 지명의 세 가지 일반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이 중 구조 3형이 한국 지명의 최대 구조라 하였다. 김창환·이상원(2021)은 ‘산’을 새로이 정의하고 강원도를 대상으로 국가기본도의 산 지명, 산 위치, 산 높이(고도) 등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정보를 도출하였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만나며 한국인의 심상에 항상 존재하는 대부분의 산에는 저마다 불리는 지명이 있다. 남산, 앞산, 등과 같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 지명도 있으나, 뒷산, 왼음산, 노고산 등과 같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어려운 지명도 있다. 사자봉, 쥐봉, 마산과 같이 동물명이 있는가 하면, 옷골산, 이터산 등 주거지 관련 지명도 있다. 어떤 지명은 같은 지역에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어느 산은 지명유래나 전설이 있으며, 어느 산은 머리를 가우뚱하게 하는 지명도 있다. 산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구조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명유래는 얼마나 정확할까? 지명과 전설은 어떤 관계일까? 그 많은 한자지명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어떤 것들이 자연지명이고 몇 개나 될까?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인문지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숫자로 만들어진 지명도 있을까? 아주 옛날 토테미즘에 의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염원지명을 만들었을까? 강원도에만 나타나는 지명은 무엇일까? 등 지명에 관한 의문이 있었다.

이처럼 산 지명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이곳저곳 검색하고 찾아보아도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산 지명에 관한 연구는 더더욱 미약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심상에 있고 눈 속에 있고 항시 존재하는 산 지명에 대한 궁금증이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의 산정보 중 '산 지명'에 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국가기본도(1/5000 축척)에서 추출한 '산/산맥 자료'(2020.7.27.) 12,346개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산 명칭을 기준으로 정리한 '산 높이 및 위치 자료'(2019.4.8.) 7,367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즉, 본 연구의 기준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이고, 중복되지 아니한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16개를 추가한 강원도의 산 지명 910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김창환·이상원, 2021).

성희제(2018)에 의하면, 한국 지명의 일반적인 구조는, 구조 1형(기본부), 구조 2형(수식1부)(기본부), 구조 3형(수식2부)(수식1부)(기본부) 등 세 가지 형태이고 이 중 구조 3형이 최대 구조라 하였다. 김정태(2017)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일컫는 이름인 산 지명은 여러 산을 구별하기 위해 ○○산, □□봉, △△오름 등으로 부른

다. 이때 피수식 위치인 후부의 산·봉·오름 등은 지명의 갈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수식 위치인 전부의 ○○, □□, △△ 등은 지명 형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지명의 갈래에 대한 구별은 후부지명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동일 갈래에 대한 구별 기능은 전부지명소(前部地名素)가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는 산 지명 중 전부의 ○○, □□, △△ 등 지명 형성과 관련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의 대상 선정에 반영된 피수식 위치인 후부지명소 산·봉·오름 등은 표 1과 같다.

연구 방법은 첫째, 선행연구 및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지명 정의를 한다. 둘째, 「산 지명 유형 분류 기준」을 만든다. 셋째, 분류 기준에 의거 지명을 분류한다. 넷째, 분류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 지명에 대해 분석을 한다.

II. 산 지명 유형 분류 기준

1. 개요

지명 유형 분류 관련 선행연구로 전경숙(1979)은 국내 최초로 지리학적 측면에서 지명 유형 분류를 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지명을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대분류하고, 자연지명은 지형 등 4개, 인문지명은 행정구역 등 5개로 분류하였다. 라인효(1984)는 자연환경, 문화역사, 기타로 대분류하고, 자연환경은 위치 등 6개, 문화역사는 유적 등 7개로 분류하였다. 이학원 등(1996)은 강원도의 지명을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대분류하고, 자연지명은 지형 등 4개, 인문지형은 시설물 등 5개로 분류하였다. 김창환·양준혁(2021)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사라진 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지명, 인문지명, 위치지명, 신앙지명, 인연지명, 염원지명 등 6개로 대분류하고 자연지명은 지형 등 3개, 인문지명 취락 등 4개로 분류하였다.

자연지명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생겨난 자연물

표 1. 산 정의 및 산 지명 후부지명소

구분	연구 내용
'산'개념	기복이 있는 침식지형으로 주변과 구별되는 고도의 봉우리를 가진 하나의 단위체
'산지명 후부지명소'	산(山), 봉/봉우리(峰), 오름(山), 대(臺), 약(嶽), 뫼(山), 메(山), 암(岩), 미(山), 오리(山), 마루(旨), 머루/모로/모루(隅), 덕/더기(德), 부리/뿌리/불(峰), 언덕(丘), 구(丘), 텃/뫼미/뫼미(丘), 단(壇), 고원(高原), 분화구(噴火口), 쉬(厓), 동산(丘), 각(角), 몰랑(峰), 마르(旨), 달(山)

자료 : 김창환·이상원(2021:184-185) 재구성.

인 산, 강, 위치, 동·식물 관련 지명 등을, 인문지명은 염원, 희망, 인물, 시설 등 인류와 관련된 지명이다. 기타는 전설 등 분류가 불가능한 지명이다.

2. 분류 기준

본 연구는 산 지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 지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적 측면에서 유형 분류한 상기 4가지 선행연구 사례를 참고하고 국가기본도의 산 지명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산 지명 유형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 산 지명은 크게 자연지명, 인문지명으로 대분류하고 분류가 불가능한 지명은 기타로 하였다. 그리고 자연지명은 6개(지형, 지세, 위치, 동·식물, 지질, 기후), 인문지명은 5개(염원, 산업, 인물, 주거, 시설물)로 중분류 했고, 자연지명에 속한 '지형'은 3개(산, 하천, 평야)로 인문지명에 속한 '염원'은 3개(신앙, 희망, 풍수)로 세분류하였다(표 4).

III. 강원도의 산 지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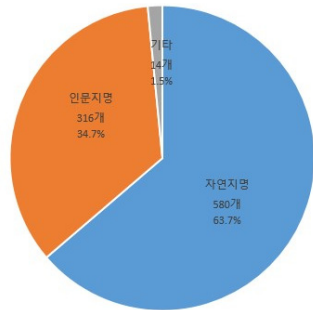


그림 1. 강원도의 산 지명 분포

지리학적 산 지명 유형은 자연지명과 인문지명, 분류 불가능한 기타 등 3개이다. 강원도의 산 지명 910개의 구성을 보면 자연지명은 580개, 63.7%로 절반을 넘으며, 인문지명은 316개로 34.7%이고, 분류가 불가능한 기타는 14개로 1.5%이다.

1. 강원도의 산 지명 중 자연지명

강원도 자연지명은 580개로 전체 산 지명 중 점유비는 63.7%이며, 지형, 지세, 위치, 동·식물, 지질, 기후로 분류하였고, 동일(同一)지명 구성은 23개부터 1개까지 9부류이다. 즉, 가장 많은 전부지명소(이하 '지명'으로 함)는 매봉으로 23개이며, 수리 19개, 매 10개, 남·두리 8개, 시루 5개, 갈미·고양·구봉·노인·두루·삼·주·천마 4개, 덕우·마·오봉·오음·태봉·핏대·학 3개이다. 지명 1개인 단독지명은 364개 점유비 84.7%이고, 2개인 지명은 45개 점유비 10.5%이다. 강원도의 자연지명은 단독지명이 가장 많고, 동일지명 2개와의 합은 409개 점유비 95.1%에 이르는 등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리학에서 지형은 지표면의 기복 형태를 의미하고 지세는 토지의 지리적 사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넓은 지역의 지형을 대관 즉 지형의 골격, 흐름, 경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거의 같은 의미로 정의되나 차이점은 지형은 땅의 기복 자체를 의미하고, 지세는 땅이나 산세의 흐름 등 경향성을 의미한다(표 6).

강원도의 자연지명 중 특성이 강한 지형은 세분화 분류했고, 점유비가 높은 지형, 지세, 위치는 상세분석하였다. 자연지명 중 '지형'은 186개로 전체 중 20.4%, 자연지명 중 32.1%로 높은 점유비를 보이며 산, 하천, 평야로 분류된다. 우선 산은 175개이며, 구성은 봉 51개, 미 18개, 덕 17개, 대 16개, 매 14개, 산 8개, 구·응 3개, 달·

표 5. 강원도의 자연지명 중 동일 전부지명소 현황

구분	23	19	10	8	5	4	3	2	1	계	
동일 지명	산 지명	매봉	수리	매	남,두리	시루	갈미,고양, 구봉,노인, 두루,삼,주, 천마	덕우,마,오 봉,오음,태 봉,핏대,학	가덕,계,노 고,덕고 등 45개	가래,가리, 갈마,갈비 등 364개	-
	개수	1	1	1	2	1	8	7	45	364	430
	비율(%)	0.2	0.2	0.2	0.5	0.2	1.9	1.6	10.5	84.7	100.0
산의 수	23	19	10	16	5	32	21	90	364	580	

표 6. 지형과 지세의 정의

구분	자연지리학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형(地形) landforms	지표면의 기복 형태를 말한다. 지표면에는 8,848m의 고도를 나타내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깊이 1만 1,034m에 달하는 비티아즈 해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복이 있으며 그 고도 차이는 약 2만m 이상이다.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 =지세 전투에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와 사격할 수 있는 범위의 장애 요소로 이용하는 은폐물이나 엄폐물
지세(地勢) geographical feature	지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협의로는 토지의 자연상태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나 광의로는 토지의 지리적 사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형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형을 대관(大觀)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넓은 지역을 개관하는데 편리하다.	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 =지형

출처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약 2개 등 무려 136개, 77.7%가 전부지명소에 산의 지명소를 중복하여 사용하였고, 재 13개, 치 7개, 령 2개 등 22개는 고개 지명이다. 하천은 10개로 수, 물 관련 5개, 계 2개, 천·섬·연못 1개이고, 평야는 전평 1개이다. 자연지명 중 ‘지세’는 총 201개이고 동일지명은 가장

많은 19개부터 1개까지 7부류이다. 즉, 수리가 19개로 가장 많고, 두리 8개, 시루 5개, 노인·두루·주 4개, 덕우·마·학 3개 순이다. 동일지명 1개인 단독지명은 124개로 점유비는 85.5%이고, 2개인 지명은 12개로 점유비는 8.3%이다. 강원도의 ‘지세’는 단독지명이 가장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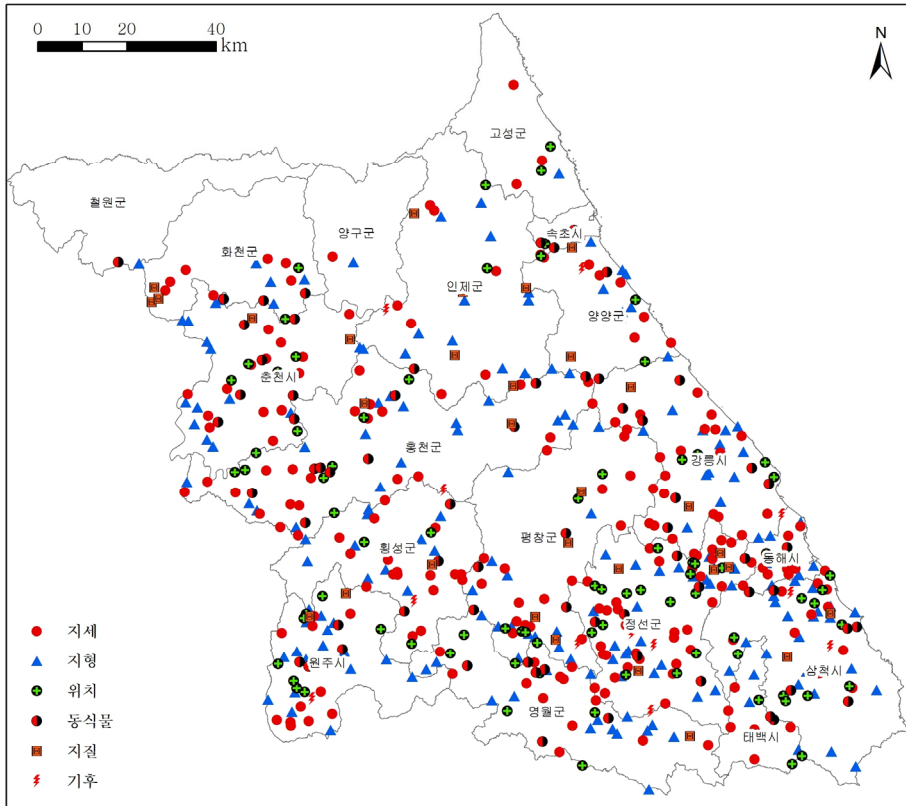


그림 2. 강원도의 자연지명 지명소 분포 현황 지도

동일지명 2개와의 합은 136개로 점유비가 93.8%에 이르는 등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세는 땅의 생김 모양이나 형세로 산세, 흐름, 경향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대소, 고저, 지세, 절벽, 곳, 분기 등 6개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산세의 크고 작음을 뜻하는 '대소'는 37개이고, 크다 31개, 작다 6개로

크다 쪽의 지명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는 일상에서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명 형성에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크다는 지명은 덕 6개, 마 5개, 노인 4개, 대·한 3개, 노고·덕 2개 등 이고, 작다는 지명은 소 5개, 아 1개이다. 높고 낮음의 '고저'는 53개이고, 모두 높다 지명으로 수리 21개, 계 6개, 시루 5개, 고·월 4개, 달·술이·정

표 7. 강원도 지세의 동일 전부지명소 구성 현황

구 분	19	8	5	4	3	2	1	계	
같은 지명	산 지명	수리	두리	시루	노인,두루,주	덕우,마,학	계,노고,덕고,두류 등 12개	가득,가래,가리 등 124개	-
	개수	1	1	1	3	3	12	124	145
	비율(%)	0.7	0.7	0.7	2.1	2.1	8.3	85.5	100
산의 수	19	8	5	12	9	24	124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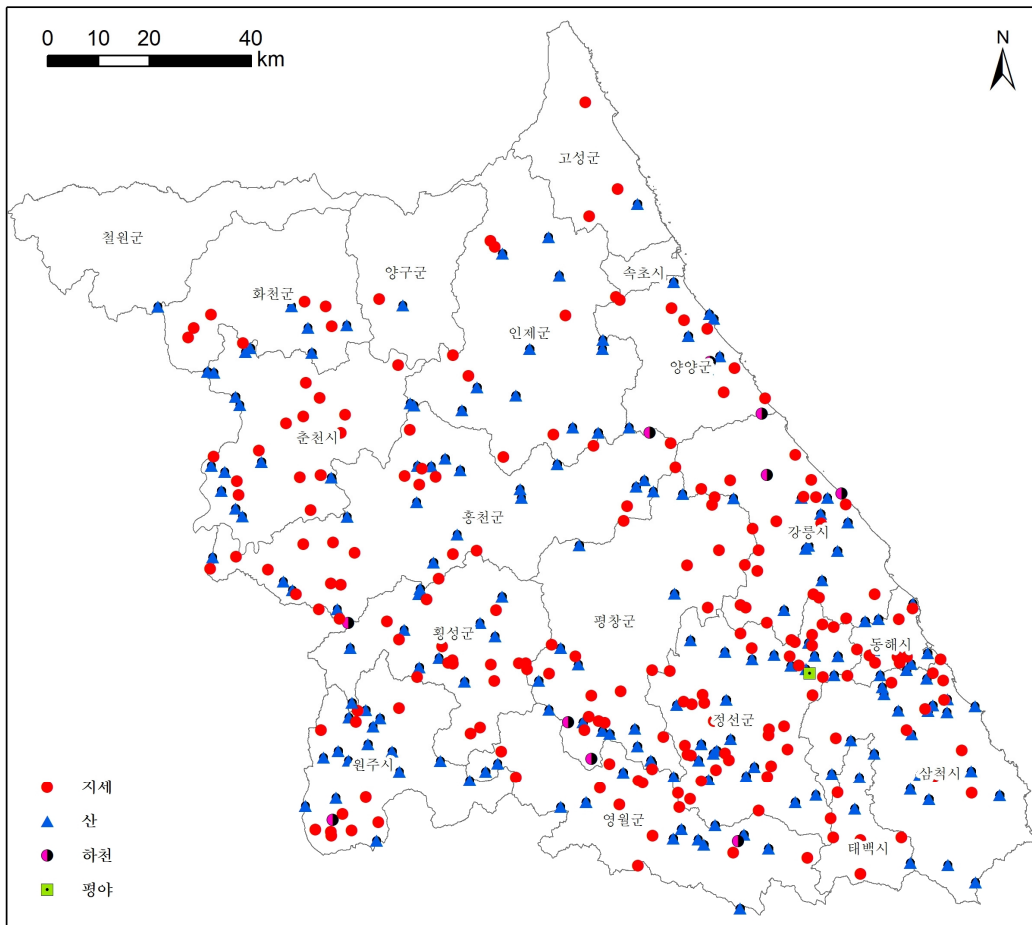


그림 3. 강원도의 자연지명 중 지세·지형 관련 지명소 분포 현황 지도

표 8. 강원도의 자연지명 중 '위치' 관련 동일 전부지명소 분포 현황

구 분		11	10	9	7	5	4	3	2	1	계
동일 지명	산 지명	삼	남	구,오	양	칠	앞	뒤,중	변,하,후	가,갓 등 16개	-
	개수	1	1	2	1	1	1	2	3	16	28
	비율(%)	3.6	3.6	7.1	3.6	3.6	3.6	7.1	10.7	57.1	100.0
산의 수		11	10	18	7	5	4	6	6	16	83

2개 등이다. 지세 카테고리 내 '지세'는 72개로 두리 8개, 학 7개, 주 5개, 두루 4개, 각·고·능·덕우·뽕죽·황이 3개, 두류·탄·민둥 2개 등이다. 특히 주변이 산 등으로 빙 둘러싸인 곳을 의미하는 두리, 학, 주, 두루, 두류, 두로, 둔지, 둥근, 명우, 와우 등 두름/뚝 계열이 31개로 43%에 이른다. 고위평탄면은 덕우 4개, 민둥 2개, 황병 2개, 고루, 천의, 지억 등 11개이다. 홀로 있거나 뽕죽하다 뜻의 지명으로 각 3개, 뽕죽 3개, 고 2개, 탄 2개, 접, 독묘 등 10개이고, 늘어진 지세로 황 3개, 노루·장 1개 등 5개이다. 급경사지나 벼랑 등을 나타내는 '절벽'은 병 11개, 벽 3개, 비, 벼랑 등 17개이다. 빼죽 나온 지세인 '긷'은 8개로 화 6개, 고지 2개이고, 갈라짐을 표현하는 '분기'는 갈 7개, 가리 4개, 칼 2개 등 14개이다.

자연지명 중 '위치'는 장소를 특정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위·음양·시기·숫자 등으로 표현된다. 강원도 위치 관련 지명은 83개로 전체 산 지명 중 점유비는 9.1%이며, 동일지명 구성은 9개부터 1개까지 9부류이다. 가장 많은 지명은 숫자 삼으로 11개이며, 남 10개, 구·오 9개, 양 7개, 칠 5개, 앞 4개, 뒤·중 3개, 변·하·후 2개 순이다. 단독지명은 16개 점유비는 57.1%이고, 동일지명 2개와의 합은 19개로 점유비는 67.8%이다. '위치'에는 숫자가 유난히 많은데 이는 지명 발생 순후를 숫자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며, 지명에 사용된 숫자는 삼·구·오·칠·셋·육백·천·팔 등 39개로 위치 관련 지명 중 46.9%에 이른다. 다음 방위(方位)는 동·서·남·곰·앞·뒤·상·중·하·웃·가·갓·변·근·면·비개 등 35개 42.2%이다. 음양(陰陽)은 양 7개이고, 시기는 후 2개이다.

'동·식물(動植物)'은 67개로 자연지명 점유비는 13.5%이다. 동물의 구성은 말 8개, 소·용 7개, 봉황 3개, 범·학·매·뱀 2개이고, 사자, 개, 거북이 등이 13개이다. 식물은 꽃 관련 10개, 나물 4개, 잎 2개, 나무·열매 2개이다. 상기와 같이 동물이 46개로, 식물 21개보다 월

등히 많은데,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동적인 식물보다는 역동적인 동물에 더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지명 형성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동물도 역동성을 보이는 말, 농업에 꼭 필요한 소, 상상의 동물인 용, 봉황 등이 많고, 산신 신앙의 호랑이, 사냥에 쓰이는 매, 학, 사자, 개, 거북이 등 각종 동물이 등장한다. '지질'¹⁾은 31개로 자연지명 점유비는 6.2%이며, 구성은 암 14개, 석 8개, 바위 6개, 돌 2개 등이다. '기후'²⁾는 12개로 자연지명 점유비 2.4%이며, 구름과 비 5개, 안개 3개, 눈 2개 등이다.

기복을 특성으로 하는 산이라는 지형의 형성 과정에는 풍화와 침식작용이 있었다. 따라서 산의 정상 부분에 선 개의 웅덩이가 있는 선음산은 산으로 분류했다. 산 지명은 멀리서 지세와 형세 등 땅의 흐름과 경향성을 보고, 가까이에서 산의 모형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일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했던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의 지세가 산 지명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강원도의 산 지명 중 인문지명

강원도 인문지명은 316개로 전체 산 지명 중 점유비는 34.7%이며, 염원, 산업, 인물, 주거, 시설물로 분류하였고, 동일지명 구성은 16개부터 1개까지 8부류이다. 가장 많은 지명은 샷갓으로 16개이며, 봉화 9개, 신선 6개, 깃대·노적·안·옥녀·형제 5개, 가마·백운 4개, 고성·관모·국사·장구·장군·태 3개 등이다. 단독지명은 198개 점유비 85.3%로 가장 많고, 동일지명 2개와의 합은 216개 점유비 93.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문지명 중 '염원'은 130개로 전체 중 20.4%, 인문지명 중 32.1%로 높은 점유비 보이며 동일지명 구성은 6개부터 1개까지 5부류이다. 가장 많은 지명은 신선으로 6개이며, 안 5개, 가마·백운 4개 등이다. 단독지명은 83

개 점유비는 82.2%로 가장 많고, 동일지명 2개와의 합은 97개로 점유비 9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원도의 인문지명 중 점유비가 높은 '염원' 관련 지명은 신앙, 희망, 풍수로 구분하여 상세 분석하였다. 첫째, '신앙'은 39개이며, 세부 구성은 불교 관련이 20개로 가장 많으며, 왕과 제 4개, 달마·두타·문수·비로·연화 2개, 나한·낙·미륵·세존·원통·지장 등이다. 도교는 선 8개 등

10개이고, 민속신앙은 당·성·일 2개 등이다. 둘째, '희망'으로 58개이며 3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성한 존재'는 가마·감 4개, 거문 3개, 가칠·백적·금·칠성 2개 등 21개이다. 다음, '좋은 의미'는 소망을 뜻하는 망 4개, 나라를 지키는 국수 2개, 삼강오륜의 윤 2개, 복 2개 등 17개이고, 마지막, '빛 승배'는 백 6개, 발·명 4개, 박 3개 등 20개이다. 셋째, '풍수'는 33개로 국(局)

표 9. 강원도의 인문지명 중 동일 전부지명소 분포 현황

구 분		16	9	6	5	4	3	2	1	계
동일 지명	산 지명	삿갓	봉화	신선	깃대,노적,안, 옥녀,형제	가마, 백운	고성,관모, 국사,장구, 장군,태	가칠,거문, 국수,급대 등 18개	조,정,인, 가리,각시 등 198개	-
	개수	1	1	1	5	2	6	18	198	232
	비율(%)	0.4	0.4	0.4	2.2	0.9	2.6	7.8	85.3	100.0
산의 수		16	9	6	25	8	18	36	198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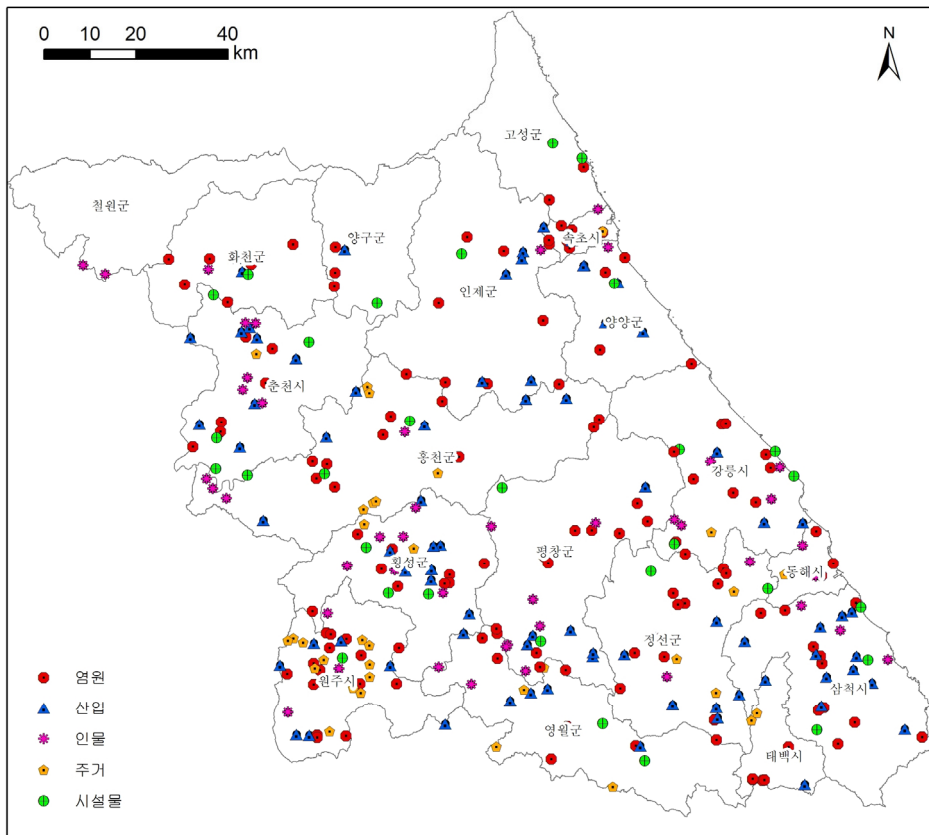


그림 4. 강원도의 인문지명 지명소 분포 현황 지도

표 10. 강원도 인문지명 중 '염원' 관련 동일 전부지명소 분포 현황

구 분		6	5	4	2	1	계
동일 지명	산 지명	신선	안	가마,백운	가칠,거문,국수 등 14개	감루,감박,감추 등 83개	-
	개수	1	1	2	14	83	101
	비율(%)	1.0	1.0	2.0	13.9	82.2	100.0
산의 수		6	5	8	28	83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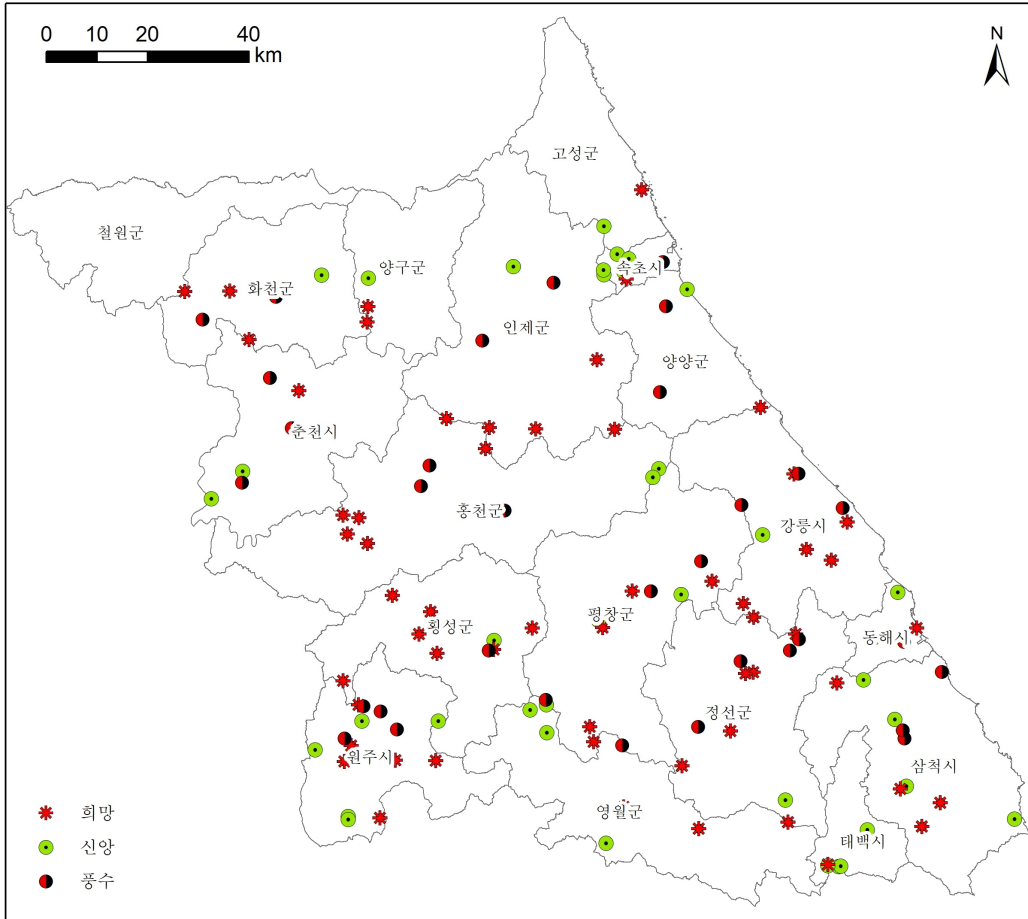


그림 5. 강원도의 인문지명 중 염원 관련 지명소 분포 현황 지도

관련 용어가 많으며, 세부 구성은 명당기준으로 볼 때 앞쪽의 안 10개, 아미·문필 2개, 남 1개 등 15개이고, 왼쪽의 청룡, 용의 흐름과 관련한 뒤쪽의 조와 된 3개, 형세를 나타내는 봉황 4개, 용 2개, 명당의 방향과 관련한 근, 병방이 있고, 장례 관련으로 공동, 무덤, 송장이 있다.

인문지명 중 '산업'은 77개로 인문지명 점유비가 24.3%이며, 순수 산업과 도로로 구분하였다. 순수 산업은 농업 관련한 노적 5개, 전·삼 1개, 임업 관련 6개, 상업 관련 방 2개, 석회, 염, 철 등 18개이다. 다음 '도구'는 59개로, 삿갓 16개, 고깔과 감투 4개, 관모 3개, 투구 1개 등 24개가 머리에 쓰는 모자 관련 지명이고, 특히 삿갓

은 강원도에만 나타난다. 장소의 표식을 나타내는 깃대와 표대가 7개이고, 음식을 만드는 부엌 기구는 솥 4개, 주걱 2개, 밀개·밥·석기·종지 등 10개이고, 약기는 4개로 장구 3개와 나팔이다. 생활 도구는 옷을 만들던 물레 2개, 향로 2개, 촛대 2개, 무더진 낫이나 도끼를 갈던 솥돌 2개 등이다. 다음 인문지명 중 '인물'은 46개로 인문지명 점유비는 14.6%이며, 구성은 왕 11개, 옥녀·형제 5개, 군인 4개, 국사·장군·태 3개, 땡이 2개 등이다. 인문지명 중 '주거'는 33개로 11.4%이며, 구성은 골 11개, 리 8개, 대 6개, 실·막 2개 등이다. 인문지명 중 '시설물'은 30개로 인문지명 점유비는 9.5%이며, 구성은 성·봉화대 10개, 병 2개 등이다. 기타는 요과, 유향, 메나, 밤개 등 분류가 불가한 지명소 14개이다.

IV. 결론

이번 연구는 지명 형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전

부지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와 국가기본도의 산 지명 특성을 반영하여 「산 지명 유형 분류 기준」을 만들어 강원도의 산 지명 910개를 분석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의 자연지명은 580개로 전체 산 지명 중 점유비는 63.7%이다. 가장 많은 지명은 매봉으로 23개이며, 수리 19개, 매 10개, 남·두리 8개, 시루 5개 순이다. '지형'은 186개로 자연지명 중 32.1%로 점유비가 높다. 구성은 '산'이 총 175개이며 봉 51개, 미 18개, 덕 17개, 대 16개, 매 14개, 산 8개 등 136개가 전부지명소에 산 지명 후부 요소가 중복되었고, 고개도 22개 있다. 하천은 10개, 평야 1개이다. '지세'는 201개이며, 수리가 19개로 가장 많고, 두리 8개, 시루 5개 순이다. '위치'는 83개이며, 가장 많은 숫자는 삼으로 11개이며, 남 10개, 구·오 9개, 양 7개, 칠 5개, 앞 4개, 뒤·중 3개 순이다. '위치'에 숫자가 많은 이유는 지명의 발생 선후를 숫자를 통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사용된 숫자는 삼·구·오·칠·셋·육백·천·팔 등 39개이고, 방위는 동·

표 11. 시군구 별 지명 분포 현황 (단위: 개)

유형	자연지명									인문지명								기타	합계
	지형			지세	위치	동식물	지질	기후	계	주거			산업	인물	주거	시설물	계		
	산	하천	평야							신앙	희망	풍수							
강릉시	11	2		17	4	7	2	1	44	1	6	2	3	5	1	4	22		66
고성군	1			3	2				6	1	1			1		2	5		11
동해시	4			8	1	1			14	2	1	1		1	1		6	1	21
삼척시	21			12	11	7	2	2	55	4	4	3	12	3		3	29	1	85
속초시					1	3			4	5	1	1	1		1		9		13
양구군	1			1				1	3	1	1		1			1	4		7
양양군	6	3		6	2	3	3	1	24	1	1	2	5	1		1	11		35
영월군	15	1		11	7	7	1		42	5	2	2	5	3	4	2	23		65
원주시	14	1		12	7	4	2	1	41	5	7	4	7	3	12	1	39	2	82
인제군	13			10	3		4		30	1	5	2	7	1		1	17		47
정선군	23		1	34	16	7	5	3	89	1	5	4	5	3	3	2	23	1	113
철원군	1					1			2		1			2			3		5
춘천시	14			16	5	8	2		45	2	2	3	9	5	1	3	25	2	72
태백시	4			5	3	1			13	4	1		2		2		9	1	23
평창군	14	2		22	6	3	4	1	52	3	6	3	6	5		2	25	4	81
홍천군	18	1		21	9	10	2		61	1	5	3	4	4	6	3	26	2	89
화천군	4			6	2	2	3		17	1	2	2	2	1		2	10		27
횡성군	11			17	4	3	1	2	38	1	7	1	8	8	2	3	30		68
계	175	10	1	201	83	67	31	12	580	39	58	33	77	46	33	30	316	14	910

서·남·곰·앞·뒤·상·중·하·웃·가·갓·변·근·면 등 35개이다. 음양은 양 7개이고, 시기는 후 2개이다. '동·식물'은 67개로 동물이 46개로 21개인 식물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는 동물이 생활에 더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며, 동물은 말 8개, 소·용 7개, 봉황 3개 순이고, 식물은 꽃 10개, 나물 4개 순이다. '지질'은 31개로 암 14개, 석 8개, 바위 6개 순이고, '기후'는 12개로 구름·비, 안개, 눈 등이다.

둘째, 강원도의 인문지명은 316개로 전체 산 지명 중 점유비는 34.7%이다. 가장 많은 지명은 샷갓으로 16개이며, 봉화 9개, 신선 6개, 깃대·노적·안·옥녀·형제 5개 순이다. '염월'은 130개로 인문지명 중 점유비는 41.1%이다. 가장 많은 지명은 신선으로 6개이며, 안 5개, 가마·백운 4개 순이다. '신양'은 39개로 불교 관련이 20개로 가장 많으며, 왕과 제 4개, 달마·두타·문수·비로·연화 2개 순이고, 도교 10개, 민속종교는 당·성·일 2개 등이다. '희망'은 58개로 신성한 존재는 21개로 가마·감 4개, 거문 3개 순이고, 좋은 의미는 17개로 망 4개, 국수·윤·복 2개 순이며, 빛 승배는 20개로 백 6개, 발·명 4개, 박 3개 순이다. '풍수'는 33개로 명당 앞쪽의 안 10개, 아미·문필 2개, 뒤쪽의 산 3개, 형세의 봉황 4개, 용 2개 등이고 장례로 공동, 무덤, 송장이 있다. '산업'은 77개로 농업의 노적 5개, 임업 6개이고, 샷갓 16개, 고깔과 감투 4개, 관모 3개 등 머리에 쓰는 모자가 24개에 달하며, 특히 샷갓은 강원도에만 나타난다. 깃대와 표대가 7개이고, 부엌 기구 10개, 악기 4개, 생활 도구로 물레·향도·춧대·숯돌이 각 2개이다. '인물'은 46개로 왕 11개, 옥녀·형제 5개, 군인 4개, 국사·장군·태 3개 순이다. '주거'는 33개로 골 11개, 리 8개, 대 6개 순이고, '시설물'은 30개로 성·봉화대 10개, 병 2개 등이다. 기타는 요과, 유향 등 분류가 불가능한 14개이다.

셋째, 산 지명은 멀리서 지세와 형세 등 산의 흐름과 경향성을 보고, 가까이에서 산의 모형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일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했던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의 지세가 산 지명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註

1) 지질(地質)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암석이나 지층의 성질 또는 상태로, 흔히 국어사전(남영신, 2005)은 '땅의 거죽을 이루고 있는 바위나 지층의 성질 및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암석, 바위 등은 지질의 한 분야이다.

2) 권혁재(2005)는 기후를 '어떤 장소에서 다년간에 걸쳐 반복되는 대기의 종합적인 상태'라 하였으며, 보통 30년간의 평균기상 상황을 반영한 지역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다.

참고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2005, 「지명 표준화 방안 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0, 「지명업무 체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4, 「지명의 종류별 정비 지침 마련 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5, 「지명업무 활성화를 위한 지명 정비 체계 기반 마련 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6, 「지명 제정 확대 등을 위한 2016년 지명정비 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6, 「국제지명 활동 강화를 위한 전략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8, 「지명 표준화 역량 강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2019,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총회 대응전략 연구」, 경기: 국토지리정보원.
- 권혁재, 2005, 「자연지리학」, 경기: 법문사.
- 김정태, 2017, “지명 형성의 한 유형에 대하여,” 지명학, 26, 33-62.
- 김창환·양준혁, 2021,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사라진 마을과 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31(1), 138-149.
- 김창환·이상원, 2021, “국가기본도의 산정보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0(1), 181-192.
- 도수희, 1994,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4(1), 3-27.
- 도수희, 1999, “지명 해석의 새로운 인식과 방법” 새국어생활, 9(3), 99-106.
- 권선정, 2010, “풍수 지명과 장소 의미: 충남 금산군을 대상으로” 문화역사지리, 22(1), 19-32.
- 권선정, 2012, “풍수 지명의 유형과 장소 의미 구성: 대전광역시

역시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6(4), 457-475.
남영신, 2005, 「훈+ 국어사전, 경기: 성안당.
라인효, 1984, “지명의 지리적 의미와 그 유형분류에 관한 고찰” 지리학보고, 3, 19-30.
성희재, 2018, “한국 지명의 구조와 형성” 지명학, 29, 65-93.
이학원·정장호·김창환, 1996, “강원도 지명의 종류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3),” 강원문화연구, 15, 3-24.
전경숙, 1979, “충청북도 지명의 유형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진천군과 단양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최원석,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파주: 한길사.
최재용, 2015,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 경기: 21세기북스
최정호, 1993, 「산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자연지리학 사전, 경기: 한울아카데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data.nsd.go.kr>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ngii.go.kr>
대한민국 최신 행정구역(SHP), <http://www.gisdeveloper.co.kr>

교신 : 이상원,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과(이메일: lsw2048@naver.com)

Correspondence : Sang Won Lee, 24341, 1 Kangwon 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lsw2048@naver.com)

투고접수일: 2021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일

